

반야심경

용성 역

‘관자재성사’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형색’과 ‘반어들이’는 것과 ‘생각’과 ‘나’고 ‘떨’하며 ‘떨’하고 ‘나’서 쉬지 않고 ‘행’하는 것과 ‘알음’아리를 내는 이 다섯 가지 ‘쌍음’이 다 ‘뛰어’ ‘공’함을 빚우어 보아서 일체 ‘고액’을 제도하나라 ‘사리자’야 ‘형색’이 ‘뛰인’ 것과 닳으지 않고 ‘뛰인’ 것이 ‘형색’과 닳으지 않으며 형색이 곳 뛰인 것이오 뛰인 것이 곳 ‘형색’이니 ‘받음’과 ‘생각’과 ‘행’함과 아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야 이 물론 ‘법’이 ‘뛰인모양’은 ‘나’고 ‘떨’하는 것이 아니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며 더하고 덜한 것이 아니니 이런 고로 ‘뛰인’ 가운데에는 ‘형색’과 ‘받음’과 ‘행함’과 ‘알음’의 다섯 가지 ‘쌍음’이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여섯’뿌리가 없으며 ‘형색’과 ‘소래’와 ‘향기’와 ‘맛’과 ‘땃임’과 ‘법’의 ‘여섯’띠끼이 없으며 ‘여섯’뿌리와 ‘여섯’띠끼와 ‘여섯’알음의 ‘열여덟’지경이 없으며 무명의 ‘반연’으로 행이 생기고 행의 ‘반연’으로 ‘알음’이 생기고 ‘알음’의 반연으로 ‘일흠’과 ‘형색’이 생기고 ‘일흠’과 ‘형색’의 ‘반연’으로 ‘여섯’‘뿌리’의 ‘들임’이 생기고 ‘여섯’‘뿌리’의 ‘들이’는 ‘반연’으로 ‘땃임’이 생기고 ‘땃임’의 반연으로 ‘받음’이 생기고 ‘받음’의 ‘반연’으로 ‘사랑’이 생기고 ‘사랑’의 ‘반연’으로 ‘취함’이 생기고 ‘취함’의 ‘반연’으로 ‘있음’이 생기고 ‘있음’의 ‘반연’으로 ‘나는’ 것이 생기고 ‘나는’ 것의 ‘반연’으로 ‘늡’고 ‘병’들고 ‘죽’고 ‘근심’되고 ‘습’으고 ‘괴롭’이 생기나니라 ‘무명’이 ‘떨’한즉 ‘행’이 ‘떨’하고 ‘행’이 ‘떨’한즉 ‘알음’이 ‘떨’하고 ‘알음’이 ‘떨’한즉 ‘일흠’과 ‘형색’이 ‘떨’하고 ‘일흠’과 ‘형색’이 ‘떨’한즉 ‘육근’에 ‘반어’‘들임’이 ‘떨’하고 ‘육근’에 ‘반어’‘들임’이 ‘떨’한즉 ‘땃음’이 ‘떨’하고 ‘땃음’이 ‘떨’한즉 ‘받음’이 ‘떨’하고 ‘받음’이 ‘떨’한즉 ‘사랑’이 ‘떨’하고 ‘사랑’이 ‘떨’한즉 ‘취’하는 것이 ‘떨’하고 ‘취’하는 것이 ‘떨’한즉 ‘있음’이 ‘떨’하고 ‘나는’ 것과 ‘늡어’‘죽는’ 것과 ‘근심’하는 것과 ‘습’어하는 것과 ‘괴로운’ 것이 다 ‘떨’하나니라

본래에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내지 ‘늡어’ 죽는 것도 없으며 또한 ‘늡어’ 죽는 것이 다 함도 없으며 ‘괴롭’과 ‘몸음’과 ‘떨’함과 ‘도’와(苦集滅道) 이 네 가지 ‘법’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또한 얻을 것도 없나니 얻을바 없는 것을 쓴 연고니라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 고로 ‘맘’이 걸넘이 없으며 걸넘이 없는 고로 ‘공포심’이 없어 ‘던도’(顛倒)하는 ‘꿈’생각을 멀히 여히고 ‘구경열반’(究竟涅槃)을 증득하여 ‘삼세’ 물론 ‘불타’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신 고로 ‘아복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었나니라 그런 고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이 크게 ‘신기’한 ‘주문’이며 이 크게 ‘밝은’ ‘주문’이며 이 우히 없는 ‘주문’이며 이 ‘등급’과 ‘등급’이 없는 ‘주문’니라 능히 일체 괴롭을 제하나니 진실하야 헛되지 않은 고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노라 곳 ‘주문’을 설하사 가로대 아데 아데 바라아데 바라승아데 모지 사바하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4집, 44하~46상에 전제된 것을 꺾쇠(「」)를 작은따옴표(‘ ’)로 바꾸고 일부 띄어쓰기만 실시하였다. 밑줄 친 부분은 역자에 의해 보입된 부분으로 보인다. 牛迦